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아일랜드 위기 불안감 여전

- 아일랜드 구제금융 결정이 임박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유럽의 금융시장은 구제금융 지원 결정 발표 이후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.
 - EU와 IMF의 아일랜드 구제금융이 850억 유로로 발표된 가운데 영국과 스웨덴도 각각 82억 유로, 5.3억~11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함.
 - 비유로회원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구제금융 개별 지원 계획을 밝힘.
 - 그러나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요청 다음 날인 22일 아일랜드 5년물 국채 CDS프리미엄은 오히려 상승 반전하여 전일대비 20bp 오른 527.36bp를 기록하였고, 그리스와 스페인의 CDS프리미엄도 일제히 상승함.
 - 특히 포르투갈의 CDS프리미엄은 반년 만에 일일 최대 상승 폭인 40bp 급등하며 457.55bp를 기록함.
- 유럽의 금융시장은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이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남유럽 국가의 위기발생 가능성을 주목함.
 - 뉴욕타임즈는 구제금융이 상황만 지연시킬 뿐이며 취약한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채권자들에게 디폴트 선언을 하는 게 낫다는 견해를 피력함.
 - 투자자들은 아일랜드 다음으로 포르투갈을 주시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이후에는 인접 국가인 스페인, 이탈리아, 프랑스를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지목하는 가운데 종국적으로는 EU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.
- 중앙유럽 국가들은 구제금융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단일 유로화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함.
 - 슬로베니아, 슬로바키아 등 중앙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의 퇴직연금 수령자나 아일랜드 은행의 채권자를 위한 구제금융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금융에 앞서 은행의 부채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힘.
 - 유로화시스템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체코는 변동환율 덕분에 금융위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언급하는 등 유로화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피력함.

(Financial Times 11/24, 11/22, Wall Street Journal 11/23, NYT 11/22)